

책에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는 책들

풍성한 책의 세계로 독자들 안내...정평있는 고전·명저목록 주류 이뤄

“한권의 책이 존재하게 되었다, 세계이다 /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면 / 충분한 내용은 / 손에 남아 있는 낱질속으로 사라지고 / 생명이 끝나듯이 책은 끝난다 / 축복이나 저주와는 무관한 채 / 페이지마다 다시 들추어 내노라면 / 그것은 다시 책이 된다.” 독일의 작가 알폰스 슈바이게르트는 소설 「책」(도서출판 책)의 에필로그에서 이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책을 몹시 사랑하여 그만 스스로가 책이 돼버리고 말았던 한 서적애호가(가)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작가는 또한 말미에서 “이 지상에서 인간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책이 되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이 귀절은 “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 스스로 책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자못 심각하게 내뱉는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훌륭한 책, 좋은 책으로 변화하는 데는 그 책들의 존재와 가치를 알려주는 안내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안내자는 대체로 정평있는 ‘古典목록’들이 담당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신동아」 ‘名著목록’

근래에 나온 명사가 라즈니쉬의 「내가 사랑한 책들」(동광)을 비롯해 몇개의 의미있는 목록들이 있다. 이 가운데 「신동아」에서 매해 1월 신년호 별책부록으로 펴냈다가 다시 단행본으로 발간했던 몇개의 양서목록은 다소 오래되긴 했지만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현대 한국의名著 100권」(동아일보사)은 “해방 40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우리 학계가 거둔 성과와 흐름을 1차적으로 정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정신사적 위치를 가능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필요에서 85년 「신동아」1월호 별책부록으로 발간한 것을 다시 책화한 것이다. 이 책에는 1945년에서 1984년까지 40년간에 걸쳐 출간된 단행본 저서 중에서 ‘名著’ 또는 ‘문제저서’라고 손꼽을 수 있는 100권을 선정, 그 내용과 성과, 저자의 학문적 활동을 요약 소개하고 있다. 선정 범위는 특수사 부문을 포함하여 인문·사회과학 부문에 한정하고 있다.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동아일보사) 시대와 문화권과 분야를 망라하여 “세계를 움직인” 책 100권을 뽑고 있는데, 그 기준은 ①인생관이나 세계관의 바탕이 되었거나 그것의 변혁을 초래하였고 ②인지의 계발과 학문의 발달에 이바지했거나 ③사회변동과 정치적 발전



이 몇권의 책에는 동서고금의名著들이 주제에 따라 내용에 따라 여러 길로 분류돼 있다.

에 직접 자국이 된 책으로, 이 기준에 맞추어 100명의 전문가에게 추천의뢰하여 목록이 짜여졌다. 「그레이트 북스」(시카고大選) 「세계의 결정적인 책 15권」(스탠포드대학원選) 「세계를 움직인 책 10권」(호레이스 선택) 「세계를 변혁한 책 16권」(로버트 B.다운즈選), 「세계 10대 소설」(서머싯 몸選) 「一生的 독서계획」(클리프트 파디만選)등 세계의 유명목록과 이 책에 추천은 되었으나 100선 안에 들지 못한 책은 권말에 부기했다.

「韓國의 古典 百選」(동아일보사)은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으로 호평을 받은 신동아가 이듬해 기획한 목록으로 각계 전문가 100인에게 의뢰하여 한국문화의 체계를 파악하는데 중심이 될 만한 저술들을 추천받은 것이다. 이때 고전의 시한은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됐던 1876년 이전의 저술로 한정하였다. 이 책보다 고전의 시한이 좀더 근세에 가깝고 수록내용도 좀더 풍부한 저서가 현암사에서 82년도에 펴낸 「韓國의 名著」 시리즈다. 「한국문화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독창적인名著 100권」을 골라 3권에 나눠담고 있는데, 제1권에서는 ‘문학’에 관련된 저작을 수록했고 제2권에서는 ‘정치’ ‘경제’ ‘철학’ ‘종교’ ‘병서’ 분야의 저술을, 제3권에서는 ‘역사’ ‘지리’ ‘과학’ ‘기술’ ‘예술’ 분야의 저술들을 수록했다. 요즘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한문으로 씌어진 원서를 번역하고 전문가들이 해제를 달았다. 각각 씌어진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그 의미를 해당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분석해놓아 우리의 고전문학과 문화사 전반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오늘의 思想 100인 100권」(동아일보사)은

현대 학문의 각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는 저서 100권을 선정 수록하고 있는데, 그런만큼 철학 미학 문학 종교에서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인류학 심리학 등 역사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에 이르는 모든 학문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오늘’이라는 말이 한정하듯 “가능한 최신·최근의 명저”에서 고르고 있는데, 지나치게 전문분야이거나 계몽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의 책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늘날의 사상적 경향과 같이 여러 학문과 연계되고 파급 영향력이 큰 저자와 저서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반성환 광광수 오병남 김민환 정진홍 차인석 김인희 정운영 하두봉 박세일 등이 해제를 썼다.

한 명사가 고른 「... 사랑하는 책들」

「역사를 움직인 100권의 철학책」(동아일보사)은 동·서양을 비롯 한국의 철학자 100명을 선정하여 그의 주요저서를 중심으로 그 철학자의 철학사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서양철학의 경우,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는 고전철학은 물론, 실존철학 과학철학 현상학 해석학 사회철학 등 현대철학의 조류를 광범위하게 다루었고 동양철학은 인도철학에서부터 儒-佛-仙, 제자백가에 이르는 중국철학과 한국철학을 포괄하였다.

「中國古典 百選」은 중국의 고전중에서 일반인이 중국과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되는 책들을 모았다. 권덕주(숙명여대 중문과) 배중호(연세대 철학과) 안병주(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이병한(서울대 중문과) 외 4인의 選考委員들이 ‘문학’ ‘역사’ ‘철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100권을 선정

하고 해당분야 전공교수 60여명이 각 전적에 대해 해설을 붙였다.

어떤 기준이나 주제에 따라 혹은 특정인물이 나름의 취향에 따라 만든 도서목록 가운데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라즈니쉬의 「내가 사랑한 책들」이다. ‘오소 리즈니쉬의 비밀서가에서 훑쳐본 150권의 신비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책을 주제로 한 라즈니쉬의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라즈니쉬는 칼릴 지브란, 리처드 바크, 보리 달마, 노자, 장자, 피타고라스, 니체, 도스토옙스키, 니코스 카잔차키스 등을 중요한 저자로 칭송하는데,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참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는 마르크스를 “경제학자가 아니라 몽상가이자 시인이었다”고 규정하고 「자본론」은 “인류역사가 가장 해로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지 마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대해서도 “마음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초월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 저자도 이 책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150권의 책에 대한 라즈니쉬의 好惡의 평가가 일일이 내려져 있어 흥미롭다.

여타의 소개된 목록들에 비해 비교적 근래에 나온 것이 「오늘의 책 선정도서 총목록」이다. 이 책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 도서를 가운데 좋은 책을 선별, 추천함으로써 우리문화의 창조적인 작업이 어떤 지향과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왔던 ‘오늘의 책 운영위원회’가 1983년에서 1987년까지 모두 18차에 걸쳐 선정해왔던 총519권을 간단한 해제와 함께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앞서 소개된 목록들이 선정자의 시각과 주제에 따라 동서고금의 비중있는 책을 뽑은 것이라면 이 「총목록」은 우리 출판문화의 수준과 역량을 가능해보이는 우리의 ‘양서목록’ 이라는데 이라는데서 의의를 부여받고 있다.

이밖에도 일제에 의해 ‘출판법’이 강제로 발효된 1909년 5월 이후 해방까지 국내에서 발매금지되었던 간행물(단행본) 33권을 수록한 「日政下の 禁書 33卷」이나, 한길사가 77년 봄부터 펴내기 시작하여 86년 7월까지 모두 101권에 이르렀던 ‘오늘의 사상신서’ 시리즈를 한자리에 모은 「우리시대 출판운동과 사상신서 101권」도 우리의 시대사를 조망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도서목록들이다.

— 정혜옥기자